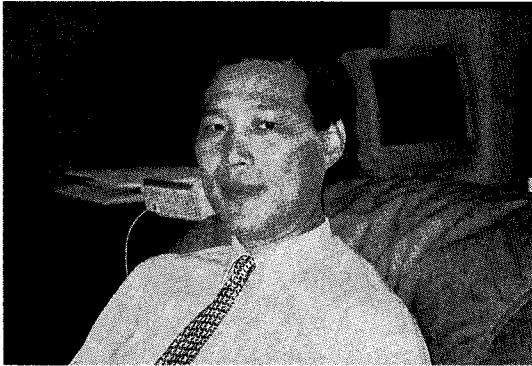




[주]유영인더스트리

전문 라벨생산 기업으로 성장이 꿈 수출시장 진출위해 판로개척 준비중



▲ (주)유영인더스트리 백영하 대표이사

1990년 5월 설립

연포장 인쇄, 가공 업체들은 최근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최대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포장재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돌리고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거세게 나타나 업체들은 관련단체들과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PVC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PET병 등 용기류에 부착하고 있는 PVC라벨에 대한 규제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 중소기업인 관련업계는 생산에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PVC라벨만을 단일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영인더스트리도 지난 몇 달간 환경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

사로 가입하고 업체가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단체 차원에서 대처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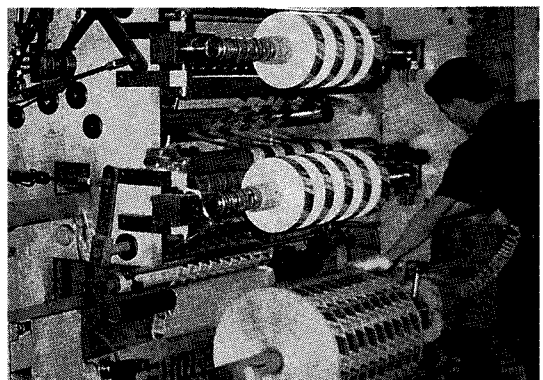
1990년 5월 지금의 생산품목인 그라비아인쇄가 아닌 변압기 부품 판넬 방열판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영인더스트리는 94년 5월부터 그라비아인쇄업을 시작했다.

96년 7월 유영산업에서 (주)유영인더스트리로 상호와 함께 법인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발판을 구축했다.

94년 그라비아인쇄사업 시작

94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백영하 대표이사는 효성중공업에서 일하다 그라비아인쇄 분야를 밝게 전망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그간 PET병 제조업체인 효성T&C에 OPP와 PVC라벨을 공급해 왔다.

PET병용 OPP라벨과 PVC라벨을 50:50의



▲ 슬리터로 작업중인 모습



▲ (주)유영인더스트리의 PET병용 라벨



비율로 생산하고 있는 유영인더스트리는 라벨 제품만을 단일 품목으로 하는 기업으로 효성 T&C라벨 사용량의 상당부분을 납품해 오고 있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유저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백 사장이 직접 품질을 체크하고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OPP 라벨은 이미 업계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직원들은 모두 10여명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1인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현장의 기능공들은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생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라며 과거에는 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유영인더스트리와 같은 중소기업들은 인력확보가 경영을 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었으나 이제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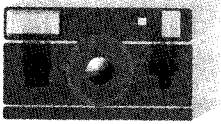
종업원의 관리를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직원들의 개인사항까지도 세심히 챙기는 것은 5년여간의 짧은 경영기간동안 터득한 경영노하우라고 백 사장은 공개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영인더스트리는 해태음료의 ‘네버스탑’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라벨사용량이 증가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네버스탑 외에도 해태음료의 탄산음료, 주스류의 라벨을 거의 대부분 공급해 오고 있다.

“지금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저희 유영인더스트리도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시장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병업체와 음료업체의 중국진출과 함께 동반진출 계획도 가지고 있고 현재 PET나 OPS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시장으로의 진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백 사장은 지난 달 1일부터 5일까지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도쿄팩98을 참관하고, 해외시장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OPS라벨 국내 적용 시기상조

일본에서는 OPS라벨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부나 일부 제조업체의 건의로 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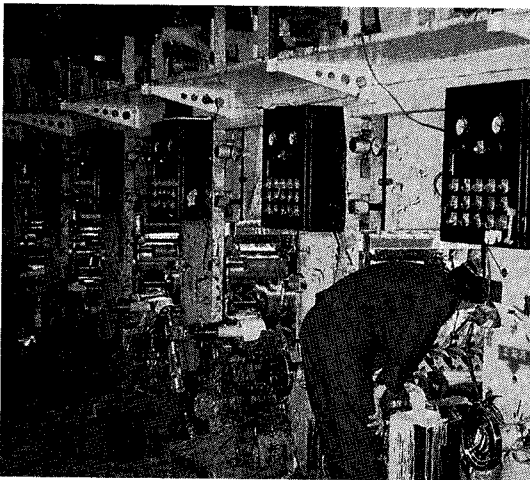


(주)유명인더스트리

사용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OPS라벨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고 밝히는 백 사장은 “OPS라벨로 대체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여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며 필름이 빨리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 보관도 냉동창고에서만 가능하고 운반시에도 냉동차량을 통해서만이 이동이 가능하므로 재고생산이 불가능하여 업계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좀더 세밀한 검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관계당국에 제안하기도 했다.

제품개발, 개선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백 사장은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남다른 주의를 기울여 유저의 손에 가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한 제품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한번 품질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직원들에게도 제품생산에 있어 철저함을 늘 강조하고 있다.



▲ 유명인더스트리의 8도 그라비아 인쇄기



▲ 1인 이상의 역할을 하고있는 유명인더스트리의 가족들

올해는 모든 경제여건이 악조건이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날 것이 예상되나 유명인더스트리는 올 한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명인더스트리만의 노하우로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하는 백 사장은 코카콜라 등에 납품할 계획이 잘 성사되었으면 하는것이 현재의 입장작은 소망이라고 말을 맺었다.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기술과 관리면에서 노하우를 축적하여 그들만의 특성을 살려야만이 대기업이 우위를 가진 이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작지만 내실있게 단일품목만을 생산하며 한 분야에서의 최고를 꿈꾸고 있는 유명인더스트리가 앞으로 라벨전문 생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

이선하 기자

업체탐방 문의

835-9041